

“엑스포 성공하려면 ‘무가선 트램’이 최적”

(무선 전철)

■ 순천 출신 한국철도기술원 최성규 원장

“호남 지자체 철도 신기술 유치 관심 가져야”

“여수 엑스포가 성공하려면 단지 내 친환경 첨단 이동수단은 필수입니다. 세계적 명물 ‘무가선 트램’(무선 전철)이 최적일 것입니다.”

국내 철도 기술의 리더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최성규(57) 원장은 “세계의 교통수단은 ‘트램(노면전차)’이 대세다”면서 “철도연은 이를 뛰어넘어 전력이 없는 ‘무가선 하이브리드 저상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12 여수 엑스포 전시장에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기술 경영자인 엑스포와 친환경 차세대 교통수단인 무가선 트램은 콘셉트가 일치한다”며 여수 엑스포에 조성되기를 희망했다. 세계 수백만명이 찾는 엑스포에서 우리나라 철도기술의 우수성을 뽐내고 해외진출의 교두보로 삼고자 한

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무가선 하이브리드 저상트램 외에 바이모달 트램의 적용도 기대하고 있다.

이 기술은 버스의 유연성과 지하철의 정시성이라는 장점만을 결합한 것으로 지난 1일부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과학축전’에 선보이고 있다.

철도연은 2010년 호남선과 전라선에 시속 350km로 달리는 한국형 고속열차를 투입할 계획이다. 10량 1편성씩 총 10편성이다. 또 곡선 구간이 많은 호남선에 새마을호 대체 열차로 탈것 열차가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순천 출신인 최 원장은 호남지역 철도시설이 타 지역보다 낙후돼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철도연에서 연구·개발 중인 다양한 신



교통시스템과 첨단 철도기술 유치가 지자체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바이모달 트램이나 저상버스 등 신 교통시스템 유치를 위해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느긋한 것 같아요.”

그는 신기술이 도입된 교통시스템을 유지하게 되면 도시 교통환경 뿐만 아니라 소음·매연이 없어 대기환경 개선에도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또 그 자체가 도시 명물이 되면서 이를 체험하려는 관광객들이 몰려 들고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밝히면서 광주·전남 지자체들의 철도 신기술에 대해 관심을 당부했다.

지난 4월 제 5대 원장에 선임된 최 원장은 내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원장이 됐다. 그만큼 조직의 신뢰가 두텁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서울대 공대를 나와 미국 MI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철도전문가이다. 그는 광주지하철의 모델인 ‘한국형 표준 전동차’ 개발을 주도했으며 탈것 열차 기술 개발의 밑그림을 그렸다. 도시철도 사업단장, 차량연구본부장, 부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제17대 대통령인 수위위원 겸 제2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



고 이청준 선생의 노제가 지난 2일 고향인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마을회관 앞에서 열렸다.

선학동으로 돌아온 ‘천년학’

故 이청준 선생 고향 장흥서 영면

지난달 31일 타계한 소설가 이청준(69)씨의 노제(路祭)가 2일 오후 선생의 고향인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마을회관 앞에서 유가족과 문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노제에는 전국 최초로 정 부로부터 문학관광특구로 지정된 ‘문림(文林)’ 장흥을 대표하는 한승원, 송기숙, 장찬홍, 이승우, 김영남 등의 문인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선생의 고향 친구이자 동료 소

설가이기도 한 한승원추모위원장은 조사에서 “이지적이고 지적이고 정직한 선생은 세상을 문명비평적인 시각으로 통찰하고 조용히 작품을 쓰면서 후학들에게 좋은 소설을 쓰는 전범을 보였고 천재 이면서도 오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글을 쓰는 근면한 작가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선생의 문인 후배인 이명흡 장흥군수와 김영남 시인이 각각 추모사와 조시(弔詩)를 읽어 내려갔고 선생의 유가족을 대표해

조카 이양래씨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노제에서는 이지선씨의 판소리 ‘속대머리’와 김덕숙씨의 가무가 펼쳐져 선생의 마지막 가는 길을 기렸고 고인의 유해는 노모가 잠든 고향땅에 안장됐다.

한편 노제에 앞서 서울삼성병원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부인 남경자씨, 외동딸 은지씨 등 유가족과 김병의 장례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고인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서편제’와 ‘천년학’의 주인공이었던 배우 오정해가 만가를 불렀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호국 불교 고구려 패망은 도교 유입 탓”

진관스님 ‘고구려 불교 수용사’ 출간

“불교를 굳게 믿었던 고구려인들이 도교가 전래하면서 패망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돌이켜 보는 것은 종교간 차이로 인한 시비가 잦은 지금의 상황을 푸는 데 지혜를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불교계 민주화 운동의 산 증인으로 꼽히는 진관 스님(60)이 중앙승가대 대학원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연구한 결과를 모아 ‘고구려 시대의 불교 수용사 연구’(경서원)를 최근에 냈다.

진관 스님은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제각각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그런 종교간 갈등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처방하면서 “지금 우리 상황은 고구려 시대와 아주 유사한 만큼 그때를 살펴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구려의 융성이 불교를 중심으로 한 ‘호국’ 이념 덕분이라는 분석을 내 놓았다.

“고구려 때 불교는 ‘호국’이라는 이념으로 일 치했기 때문에 강력한 국가와 광활한 영토를 구



고 특히 도교에 심취했던 연개소문 사후의 내분은 패망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1968년 해인사에서 비구계를 받은 그는 1987년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시인으로 활동하다 민주화 운동으로 옥고를 수 차례 치렀다. 660쪽, 3판5천원.

축할 수 있었습니다. 수나라 200만 대군을 물리친 말바탕에는 불교를 중심으로 통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어 “고구려 후기 도교를 받아들여 강력한 승군(僧軍)을 해체한 뒤 고구려 정신을 망각했

목포시, 최정자 세종대 교수에 감사패

고향 빛낸 예술인 선정

목포시가 목포 출신으로 무용분과 대한민국 예술인 회원인 최정자(63·사진 오른쪽) 세종대 교수에게 최근 ‘예향 목포를 빛낸 예술인 감사패’를 수여했다.

최 교수는 1985년 남북이산가족 교환 방문 평양공연과 2002년 한일월드컵 개막식 공연 안무 등 수많은 국내외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해 7월 현대



무용분야 최초로 대한민국 예술인 회원에 선임됐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태권도 이준구 대사범

OCA ‘파이오니어상’



태권도 보급을 통해 미국 사회에 동양문화를 널리 알려온 ‘미국 태권도계의 아버지’ 이준구(사진)대사범이 지난 2일 중국계 미국인 체인 OCA가 주관하는 ‘파이오니어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OCA는 이 대사범과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아서 동, 영화 배우 낸시 칸, OCA 창설자인 공리 왕을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

OCA는 1973년 설립된 중국계 미국인 단체로 미 전역에 80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매년 미국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아시아 출신 미국인들에게 ‘파이오니어상’을 수여하고 있다.

인사

- ◆현대해상
 - ◇상무 승진 ▲호남지역본부 주계훈
 - ◇부서장 전보 ▲호남본부지원부 홍주연

해병대전우회 광주시연합회 하계 수련회



해병대전우회 광주시연합회(회장 류재천)는 지난 2~3일 1박2일간 전북 부안군 고사포 해수욕장에서 회원 및 가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8 하계 수련회’를 가졌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수자원공사 전남 초등생 초청 영어캠프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송기근)는 1~10일 (주)YBM 서울영아머들이 건국대 충주캠퍼스에서 진행되는 하계 영어캠프에 전남지역 담주초 200명 초등학생 56명을 초청, 영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권해효 재일동포 통일마당 우정 출연

탤런트 권해효(사진)가 재일 한국인 사회의 통일추진인 제15회 통일마당에 우정 출연했다.

3일 도쿄 아라카와구의 초등학교 교정에서 민족 화해와 통일, 평화의 아시아, 차별없는 사회를 주제로 열린 제15회 통일마당에서는 북녘 어린이 영양빵 공장 사업본부 홍보대사인 탤런트 권해효의 토크쇼와 제주출신 재일동포 2세 싱어 송리더 이경미의 미니라이브, 사물놀이와 무용, 태



권도 시범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올 4월부터 북녘 어린이 영양빵 공장의 도교 사업본부가 발족해 현재 후원회원을 모집 중으로 권해효는 빵공장 사업과 민족 통일에 대한 뜻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 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광주 사대부중 4회 동창 모임 (회장 전성수)=4일(월) 오후 7시 중앙로 명성예식장 앞 맛팔정. 011-646-2668.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강의=23일(토) 오후 2시~5시 중앙도서관 5층, 책자 무료 제공. 062-670-2161, 011-609-8117.
-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

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서비스. 062-232-1375, www.forchild.or.kr

▲푸른복지 문화센터 무료 수강생 모집=호혜선, 리본공예, 웃음치료, 칼라미스,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등. 010-9940-1769.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을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모집

▲인우회 회원 모집=광주지역 전·외국 전역자들의 모임, 회장 019-277-0007.

▲트로트 가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모집=누구나 환영. 017-661-0991.

▲사랑의 배움학교 문해 한글과 점 자원봉사 교사 및 수강생 모집=성인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중급 검정고시반, 한문반, 광산구 하남성심병원 인근. 062-951-5397, 011-9456-6037.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 모집=문해교육(한글과제),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다림돌 장애인아카데미·학생 모집=초·중·고 졸업생 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오차4거리에서 도보로 3분. 010-3423-1567.

▲광주FC 축구회원 모집=매주 토요일 오후 운암동 서강고 운동장. 017-656-3431.

▲한마을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 모집=장구, 징, 팽과리, 북 함께 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악기 후원 받음. 062-

431-8025, 010-9676-0828.

▲한국웃음요가연구소(소장 김영식 박사) 국제 웃음요가 지도자양성 수시 모집=웃음치료, 웃음요가 무료상담. www.hahayoga.co.kr 062-381-8254, 011-9374-7482.

▲황실 심자수 무료 수강생 모집=쿠션·시계·베개·주자중·방식·액자·지갑·핸드폰줄 제작 등 무료 교육. 062-512-4000, 062-528-8500.

▲늘 기쁜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 모집=초등학생, 방과 후 숙제 및 학습 지도. 062-511-6771.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무진놀이단·은빛국악단 회원 및 강습생 모집=풍물반(수·오후 3시), 난타반(목·오후 3시), 장구초보반(화·오후 7시 30분), 중급반(월·저녁 7시30분). 062-523-0474, 010-2658-0876.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단 모집=광주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처. www.gjsad.or.kr. 062-384-5544.

▲북구 한울복지재단 가곡 노래 교실 ‘참고운소리단’ 회원 모집=55

세 이상 가곡을 사랑하는 남녀. 062-572-0129.

▲장애인 체육 동호회 모집=광주시장애인체육회 방문 및 홈페이지(www.gjsad.or.kr). 전화 상담후 신청. 062-384-5544.

▲놀이패 ‘신명’ 단원 모집=연극·탈춤·풍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527-7295.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 모집=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출신 환영. 011-608-1060.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 모집=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노래교실(수·오후 2시), 댄스스포츠(목·오전 10시), 땀사랑(수·오전 9시30분). 062-410-5000.

▲화순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 신청자 모집=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문의 061-373-8865.

▲광주 아버지합창단원 모집=광

주 거주 합창 좋아하시는 남성.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연습, 011-602-7354.

▲우리문화연구회 소리놀이 풍물놀이 및 장구기초, 민요, 한총 회원 모집=매주 월·수·금 오전 10시~11시, 화·금 오후 7시~8시30분. 초·중·고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주체육관 11호 장구교실. 062-371-4242.

부음

▲조이현씨 별세 영국·영길·영대·영선·영순씨 부친상=발인 4일(월) 각하동 그린장례식장 9분향소. 062-250-4409.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기적같은 특별한 분양
문의 (062) 222-0201